

세제 혜택 종료… 수소버스 보급 계획 ‘변수’

정부, 부가가치세 면제 2년 앞당겨 종료 예정
구매 비용 상승 불가피... 도 보급 계획 차질 우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도 단계적 축소 후 폐지

내년부터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종료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2030년까지 3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3일 공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당초 2028년까지였던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향후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구매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올해만 수소버스 24대를, 2030년까지 3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버스의 경우 올해 1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이후 보급 규모는 내년 본예산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수소버스 가격은 종류에 따라 대당 5억~7억원 사이로, 제주도에 따르면 수소버스의 경우 한 대당 7000만원 정도에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세제 혜택 종료에 대해 제주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갑작

스럽게 세제 혜택을 종료한다고 발표해서 당황스럽다. 이로 인한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 같다”며 “세제 혜택이 종료된 대신 보조금 형태로라도 국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전기차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종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기가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현행 대당 300만원에서 2027년 200
만원, 2028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으로 축소한 뒤 2028년 말에 종료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누적 전기
차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선
만큼 전기차 시장이 궤도에 올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개별소비세가 줄면 이에 연동되

는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현행 전기차 세제 혜택은 개별 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부가가치세 39만원, 취득세 140만원을 합쳐 최대 569만원 수준이다. 취득세 감면은 이번 개편안과 별개로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세제 혜택이 모두 종료되면 과세표준 기준으로 6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기존 실구매 부담이 최대 569만원 가량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제 감면을 보조금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전기차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혜택 축소가 소비자에게는 사실상 가격 인상과 같으며 구매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 구성 개선 필요”

일반 주민 1/3 수준 불과... 사업 제안·결정권 한계

“마을별 예산 나눠먹기식 우려… 조례 개정” 목소리

주민참여예산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 사업과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지역회의의 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 개정 검토가 요구된다. 일반 주민의 의견 개진이 다 결정권 발휘에는 한계가 있고, 마을별 예산 나뉠씩 기식으로 사업 방향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월 제주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제주에서 본격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내년도 사업 관련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국비 제외)의 1% 수준인 376억원 규모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이와 관련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지역회의조정협의회 등에 대한 별도 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논란은 지역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위원 구성에서 불거진다. 위원 구성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모집인원의 1/3, 이하 생략)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성 위원의 2/3는 주민자치위원회이나 이·통장으로 채워지는 구조로, 순수 일반 주민의 목소리는 사업 결정권에 있어 한계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실제 도내 A읍에서 최근 열린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선 주민들

이 신청한 사업 38개가 올라왔고, 이 가운데 지역참여사업 13개와 지역사업 11개가 우선순위에 포함되며 내년도 추진 사업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을 이장들이 회의 중에 자신의 마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투는 행태가 빚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위원 B씨는 “이장 본인이 사업을 제안하고, 설명하고, 본인이 점수를 매겨 결정하는 게 맞느냐”며 “최소한 제3자를 동원해 제대로 된 사업 설명이라도 들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위원 구성에 있어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2명 중 11명이 현직 이장으로 1개 마을을 빼고 이장이 곧 위원이 됐다”며 “특히 지난 6월 초 열린 지역참여사업 선정 과정에서 회의 중에 서로 자신의 마을 1순위 사업을 선정해 달라며 말을 주고받는 등의 행태까지 보였다”고 했다. 이어 “관련 예산이 4억원으로 마을별로 3000만~4000만원씩 나눠먹기 식인데, 정작 실질적인 순수 마을 주민의 의견은 배제됐다”며 “적어도 50% 수준으로 마을 주민의 위원 참여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을 읍면동에 대폭 위임하고 앞으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회의의 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상 문제는 없으나, 향후 지역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백용탁기자



조랑말 승마체험 4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진입로에서 어린이들이 조랑말 승마체험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시·농민단체 당근파종기 급수지원반 '맞손'
6일 발대식 개최… 급수차량 10대·인력 20명 배치

행정과 농업인단체가 본격적인 당
근 파종기를 맞아 최근 심화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
로 급수 지원에 나선다. 당근 파종
기는 안정적인 수분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구좌읍 당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파종과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오는 6일 오전 10시 김녕리에서 '구좌읍 당근 파종기 가뭄 극복 급수지원반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가 주도하는 급수지원반은 발대식을 기점으로 가뭄 비상단계를 해제될 때까지 비상 가동된다. 현장에는 급수차량 10대와 하루 20명 내외의 인력이 배치된다.

급수지원반은 공용 물백 급수 지원, 관수가 시급한 취약 농가에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당근 파종기에

필수적인 용수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당근 외에도 타 농작물의 생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행정과 농업인 단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현장 중심의 급수 지원체계를 가동해 가뭄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지역화폐 탐나는전 캐시백 적립 7일 0시 재개

70만원 한도서 10% 환급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된 '탐나는전' 캐시백 적립이 재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나는전 캐시백 적립을 7일 0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
해 캐시백 적립에 필요한 자원 266

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7월 0시부터 Tapna는전 카드나 큐알(QR)코드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이전처럼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 받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이상만기자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랑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굴
유라조생 / 하굴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복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듦**→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